

自 然 에 의 추 구

金 成 濤

(회 사 원)

國立公園, 自然을 國家가 保護管理한다. 언뜻 생각하면 그 必要性이 너무 애매하게 느껴지고 拘束力이 壓倒하는 이미지가 상쾌하게 하지만은 않다. 산을 좋아하고 아무런 부담없이 즐겨찾고 즐기던 自然風景地가 入山을 지키는 管理者가 서 있음으로 해서 예전에 자연스러웠던 발걸음이 무겁게 느껴지고 돈을 내야만 내親舊, 自然의 품에 안길 수 있다니 마음 또한 무겁지 않을 수 없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혼자서 중얼거리는 년센스를 저지른 때가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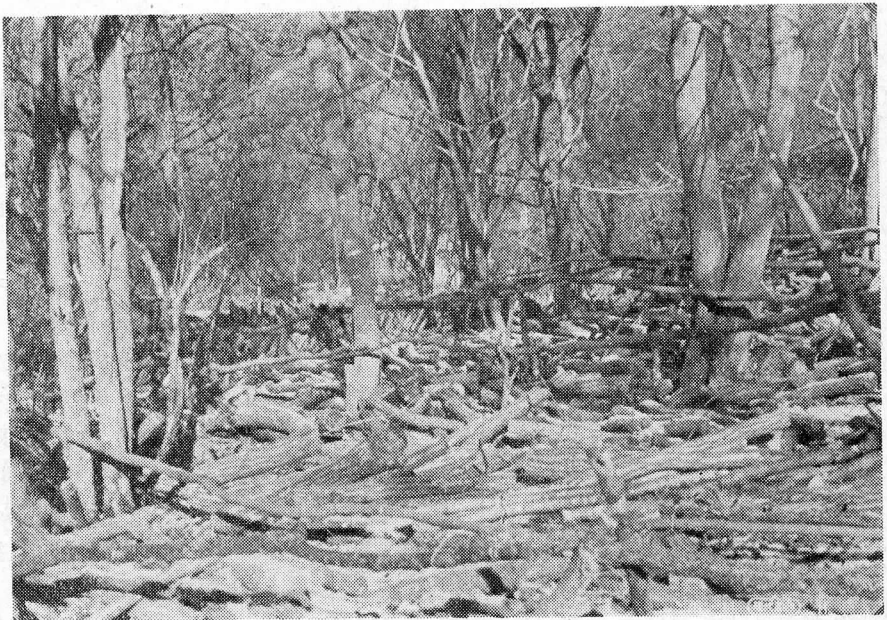
이 國土·自然이 國家의 것이며 國民이 가꾸고 지켜야 함이 명백한데도 保護하고 管理할 必要는 무엇인지, 그 理由가 어디에 있는지, 막연하여 國立公園指定 目的을 曲解하는 때도 있었다. 그러나 이젠 國立公園運動에 앞장 서기를 願하며 努力하고 있다. 이러한 심경의 變化는 釋明한 두뇌가 암시한 것이 아니며 눈으로 보고 體驗한 결과로 얻어진 信念에서부터 出發한 것이다. 우거진 樹木이 도별로 흰히 ㅈ여있고 溪谷의 맑은 물은 쓰레기와 함께 흐르고 바위등에는 낙서가 어지럽고 길가의 나무는 꺾여 흐터지는 등 自然의 破損이

두드러져 이래서야 하는 탄식이 튀어나온 것이다. 모두가 내마음 같지 않은 現實을 목격하고 保護가 절실함을 피부로 느꼈다.

人口가 增加하고 生活의 餘裕를 갖게 됨에 따라 산을 찾는 行樂客이 많아졌고 國家的인 開發에 따라 自然破壞가 大規模化하는 것을 보고 아름다운 風景地가 어떻게 變模할지 두려운 생각을 하기에 이르고 보니 國立公園愛讚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주말이면 등산복 차림을 한 많은 山行 人口가 要素마다 운집하여 景致 좋다는 산을 찾아나서는 것을 볼 수 있다.

저 많은 登山客中에 自然을 理解하고 自然의 아름다움과 自然만이 갖는 ㅈ기를 알려고 하고



〈人間的 無知가 빚어낸 自然破壞現場〉

터득할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하면 肯定的인 위안을 갖기가 힘들다. 왜일까? 차림새와 얼굴의 표정 움직이는 行動에서 不定的인 두려움이 앞선다. 마냥 설레이는 행동과 들뜬기분을 쉽게 간파할 수 있으니 무엇으로 위안을 찾아야할지 혈압이 오를 때도 있다. 이들이 風景地에 들어서면 어떠한가, 야! 아름답다. 기막히다 하는 탄성을 몇번 山頂에 오른 약호의 기쁨, 쉽게 자연에 도취되는 듯하다. 그러나 이것도 일시적인 것 혈기를 쏟는 行樂에 돌입하게 되고 자연보호문제나 공중도덕은 관심밖의 일이 되고 고성방가, 마시며 취하는 격렬한 행동이 튀어나오기 마련이다. 이러다 보면 自然神秘나 아름다움을 새기기 보다 마음껏 소리내고 흔들며 혈기부릴 수 있어서 自然이 좋다는 생각만을 하는 사례가 많다.

휴일의 名所에 간혹있는 일이 아니라 비일비제 한 사례가 부지기수에 달한다.

노는것 보다는 배우는데 관심을 갖고 조용한 休息과 審美感 體得을 위한 探勝이 바람직하고 當然한 일이나 우리의 自然探訪 實態는 그러하지 못한 아쉬움을 내포하고 있다.

소음과 공해와 아귀다툼의 비명이 난무하는 現代都市 生活속에서 벗어나 自然을 찾는 모처럼의 機會가 入山에서 부터 下山하는 探訪客의 마음이 自然섭리에 순응하고 自我의 모순을 發見하여 올바른 自然利用의 체득이 무엇보다 쉽다.

藥品냄새가 물씬나는 水道물보다는 山頂바위틈에서 용출하는 神秘한 自然藥水를 마시는 상쾌함, 혼탁한 都市의 찌드러운 空氣대신 가슴이 확트이도록 신선한 自然의 냄새 이 모두가 現代人을 살찌게 하고 있음은 아무도 否定못하면서도 언뜻 주어진 自然의 신성함을 만끽이라도 하

듯이 無秩序한 利用과 破壞의 언저리에서 맴돌며 私慾에만 急急한 人間들의 행각이 곧 自身에게 미쳐음을 안다면 自身에 無智함을 통탄 하리라.

人間은 태어날때부터 完全한 자기는 成立되지 못하고 相對性으로 存在하게 마련이며 그 相對性이란 自然에 귀속하여 質으로서 自然에서의 價値추구로 自身을 存立시키려는 방향을 계속하게 되는 것이리라.

옛날 쌍동이 女兒를 낳아 한아이는 都市에 貴族집에 보내고 다른 아이는 深山幽谷山間僻地에서 길러 20年後에 대면 지켜본 結果 전자는 社交系에 有名한 숙녀가 되었고 후자는 意思表示조차 못하는 형편이었다 한다. 그래서 人間은 環境의 造成 즉 自然이 人間에게 미치는 影響이 얼마나 重要한가를 認識하게 되었다 都市의 향기 잃은 造花와도 같은 허식적인 貴族아가씨와 순박한 시골처녀, 어느쪽이 人間의 참 모습인가를 생각해 보게 된다.

自然속에 人間이 지니는 정서적이며 善한 本性은 결국 都市의 타산적이며 능란한 話術등을 本質적으로 이기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人間이 아름다운 自然속에 파묻혀 있을 때 그들에게 本能을 滿足시키려는 慾求는 있어도 아무런 野望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다. 나는 自然을 호홉하면서 나 自身을 自然化시켜가며 自然을 사랑하고 있다.

우리는 주위의 주변, 그속에 이미 속해 있으므로 해서 自然의 냄새를 잊고 自然의 生命感 絶對感을 잊고 있는 것이다.

지금도 호홉하고 있는 空氣와 초록의 의미와 일연의 것들 이것들을 철저히 의식하면서 우리들의 아름다운 國土를 다듬고 가꾸어서 自然에의 추구를 우리 모두의 사명으로 삼자.